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증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4. 24 ~ 2022. 5. 14 제264호

## 순회선교단, '교회 회복을 위한 부흥회' 전국 순회집회로 6월까지 진행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오며 1백여 년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부흥집회가 진행된다.

그동안 '복음학교'와 '다시 복음앞에' 대회 등 총체적 복음을 통한 교회 회복을 제시해온 순회선교단이 '교회 회복을 위한 부흥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 순회집회를 갖는다.

순회선교단이 지난 2001년 개설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가동해온 '복음학교'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에서 수만 명의 성도와 목회자,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의 의미와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제공해왔다.

또 2011년 집회를 시작으로 격년마다 열린 '다시복음앞에' 대회는 매회 수천여 명이 참석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관심은 오직 복음과 기도라고 선포해 왔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순종해온 순회선교단은 지난 3월 대전 두란노교회에서 교회 회복을 위한 비상기도회

를 시작으로 4월 말부터 수도권, 부산, 광주, 전주 등에서 지역별로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흥회를 진행한다.

최근 한국교회의 위기는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교회를 지목하면서 시작된 반기독교적 분위기와 '비대면예배'라는 신조어로 교회에 대해 예배모임 중단을 요구한 정부의 요청에 교회가 순응하면서 더욱 가속화돼 왔다.

이에 대해 순회선교단 전대표 김용의 선교사(복음의 빛선교회 대표)는 "재정 부족으로 예배당이 문을 닫아서는 말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폐쇄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교회 회복의 본질을 주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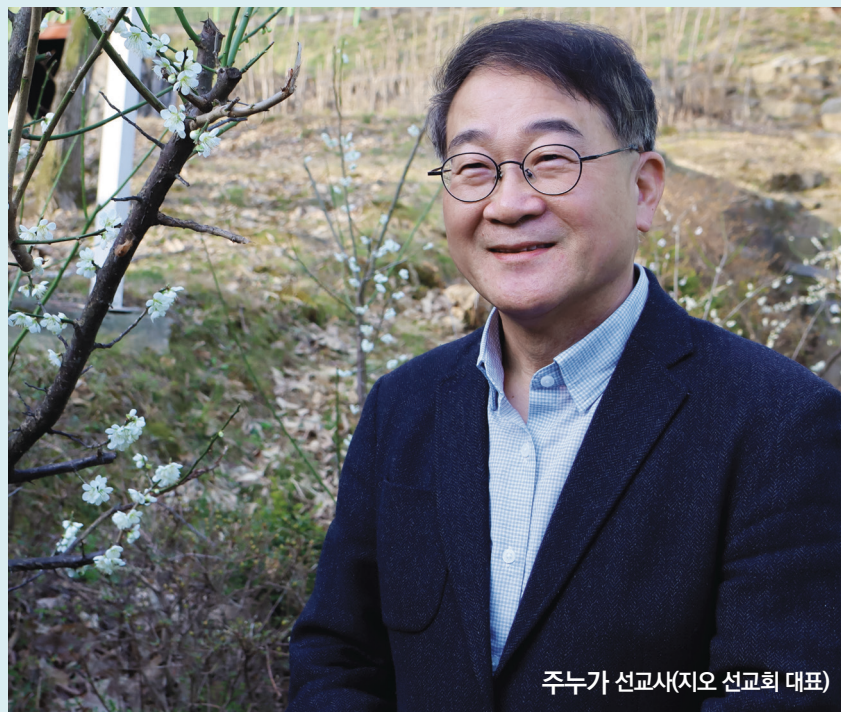
김 선교사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기초가 돼야 한다."

● 2면에 계속



▲ 교회 회복을 위한 비상기도회. © 복음기도신문

### Interview



주누가 선교사(지오 선교회 대표)

## “중동 이슬람 사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9.11 테러와 아랍의 봄의 소요 그리고 이슬람국가(ISIS)의 등장 이후, 견고한 이슬람 아랍사회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잔혹한 행태를 목도한 무슬림들의 마음에 이슬람에 대

한 의문과 회의, 더 나아가 혐오감이 형성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슬람 선교는 놀라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500여 년간의 시간보다 최근 15년간 엄청난 수의 무슬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

오고 있다. 이에 무슬림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 오랫동안 사역해온 주누가 선교사(지오 선교회, Global Operation 대표)를 만나, 그의 근황과 이슬람 선교 현황을 청취했다. <편집자>

● 5면에 계속

### 마음의 눈을 밝히사 (48)

## 불가능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세기 12: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불러내서 그를 통해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일이 이뤄진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아마도 우상을 파는 심부름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불러내셔서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의 허풍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

다. 오직 믿음으로만 계산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상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10년 정도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기다림에 지쳐 그만 정상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에 총총한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저 별들



일러스트=김경선

처럼 많아질 것이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근이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번에는 사자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방법과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

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만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 복음의 소리, 316전화

-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에세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 케냐의 한 교회에서. 제공: WMM

몽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파란 하늘 아래로 십자가가 보인다. 멋진 울동과 힘찬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마친 아이들이 삼삼오오 교회를 빠져나오고 있다. 햇빛 반짝이는 잔디밭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더니,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자연 안에서 아이들만의 존재적인 천진난만함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된다.

존재적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토끼처럼 재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지나간 사람 뒤에서 태생적으로 느릿느릿한 성격을 가진 이가, 서두르다 놓치고 하지 못한 것들을 마무리한다. 말수가 적은 사람끼리 모인 적막한 공간에서 재치있는 입담꾼은 공간을 웃음으로 가득 채운다. 오늘은 어떤 존재적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될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 2:10a) [GNPNEWS]

스리랑카 불교계와 정부, 교회의 구제활동과 예배 중단 요구하며 폭력 행사

최근 경제난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스리랑카에서 교회가 구제 활동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사역자와 목회자에게 불교계와 지역주민들이 구제활동과 예배 중단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 전국기독교복음연맹(National Christian Evangelical Alliance)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 남부 갈레주의 아크미마나에 있는 한 가정교회가 지난달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불교 승려와 지역주민 40여 명이 몰려와, 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매주 주일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가정교회에 이날 오후 4시 예배를 시작한지 20여분 지나 7명의 승려와 40여 명의 마을주민이 들어와 폭력을 행사한데 이어 교인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날 승려들은 이 가정교회를 방문한 4명의 사역자들이 돈을 주며 강제로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비영리단체(NGO)를 위해 일을 한다고 비난하며, 마을에서 주

민들을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또 사역자들이 이곳을 떠난 이후, 승려들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 교회에 참석한 것을 질책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앞서 동일한 갈레주 아말가마의 머시게이트교회는 3월초 지역관청에서 허가받지 못한 불법 교회이며, 해당 지역의 종교적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며 관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공문을 받았다. 교회 목회자들이 15일 지역관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을 때, 20명의 승려와 정부 관리들이 함께 참석해 일방적으로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는 경고만을 받았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최근 스리랑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며 반정부 시위와 민심 이반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1948년 독립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스리랑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으며 외화 수입이 급감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했다. 외환보유고가 급감하면서 화력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석탄·석유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경

제가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는 인쇄용 종이 부족해 학교에서 시험지를 인쇄하지 못해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서민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지 통신원 등에 따르면, 현재 스리랑카 교회는 허락하는 한 지역주민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등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땅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눈엣가시처럼 불편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짓이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스리랑카 땅에 전파되도록 기도하자.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미국 12개 주, 동성애 교육 금지법 제정·고려 중

플로리다, 앨라배마, 오하이오에서 시작된 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 제정이 12개 주에서 고려 중이라고 미 공영 라디오 NPR이 보도했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州)가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이후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오콜라호마,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최소 12개 주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 사용과 이에 관한 토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서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음세대에 진리가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능 프로서 동성애 부부 출연 논란… “애들 볼까 겁난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 채널S ‘진격의 할매’에서 자신들을 결혼 2년차라고 소개한 레즈비언 커플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채널S는 방송에서 “또 봐도 너무 좋은 부부”, “화목한 신혼” 등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자막을 삽입했다. 방송이 나간 후 댓글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제작진은 양심이 하나도 없네”, “진짜 애들이 볼까 봐 겁나네요. 영상 내려주세요” 등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출연자와 방송사 모두가 하나님이 명백히 규정하신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미디어를 통해 가만히 들어와 죄로 몰들이려는 사탄의 술수에서 이 세대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서 무장 괴한 공격으로 주민 100여 명 사망

나이지리아 중부 플라토주(州) 카남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의 공격으로 주민 100여 명이 숨지고 수십 채의 집도 파괴됐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현지 지역사회 지도자인 알파 삼보는 “수십 명의 괴한이 AK-47 소총, 마체테 등으로 무장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떼거리로 몰려와 무차별로 난사하고 약탈했다.”고 전했다. AP는 나이지리아의 서북부와 중부 주들에서는 오랫동안 유목민인 풀라니 무슬림과 농부인 기독교 및 다른 소수 민족 사이에 물과 땅을 놓고 충돌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이 없어 살해 당하는 주민들과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반복되는 충돌과 살인에 대해 방지하는 정부에게 책임감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4월 25일 ~ 2022년 5월 14일

4월 25일 ~ 4월 30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4.25(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4.25~28(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아산병원(이\*\*)010-5248-4147, 4.25~2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4.26(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4.29(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4.29(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5교회 진행중.

5월 2일 ~ 5월 7일 5.2(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5.2(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2~7(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5.3~6(09~21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5.5(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5.6~7(05~17시) ▶전남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5.6(12시)~7(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8교회 진행중.

5월 9일 ~ 5월 14일 5.9(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9~13(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5.10~13(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5.13(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5.14(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625-6004, 그 외 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순회선교단, ‘교회 회복을 위한 부흥회’

• 1면에 이어

며 “이런 위기 상황은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무지하면서도 복음을 무시한 태도를 회개하고 교회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 정권 아래 성장해 온 성도들은 가시적인 예배당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

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교회,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교회를 자연스럽게 세워 가고 있다.”며 “한국교회 역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로 회복되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전을 선포하며 진행될 ‘교회 회복을 위한 부흥회’는 4월 29~30일 이틀간 순복음부천

교회(담임 정원일 목사), 5월 3~4일 광주 창대교회(담임 김효석 목사), 5월 6~7일 부산 해운대감리교회(담임 한석문 목사), 6월 7~8일 전주 더온누리교회(담임 정용비 목사)에서 진행된다. 문의 | 순회선교단 선교팀 ☎ 010-2816-4365, 기도팀 ☎ 010-2128-4641 [GNPNEWS]



기획

# ‘성소수자(LGBTQ),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다’... 디즈니 전략 바뀌

전 세계 성소수자(LGBTQ)들의 주장이 점점 세력을 형성하면서, 글로벌기업들의 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디즈니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전통적인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성소수자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동성애 캐릭터를 늘리는 등 성소수자를 고려한 영업 전략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회의의 영상이 유출됐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달 28일 공립학교와 제3자가 유치원부터 3학년 사이의 학생들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HB 1557)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유출된 영상에는 디즈니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플로리다 주의 이 법안에 대한 디즈니의 초

기 대응을 비판하는 성소수자 요구에 밀려,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며, 어린이 프로그램에 퀴어니스(queerness), 퀴어 캐릭터 등을 더하는 등 앞으로 제작할 작품에 동성애자 캐릭터를 50%로 하기로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디즈니는 플로리다주의 부모권리법안에 대해 기업의 정치적 입장이 세상을 바꾸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기업의 발언은 어느 한 편을 공격하거나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초기에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초기 입장과 다른 방침이 논의된 회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디즈니에서 3월 28일 줌으로 회의한 것으로, 시티 저널의 작가이자 맨해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보수 운동가인 크리스토퍼 루포가 입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영상에서 디즈니의 제작 책임

자인 라토야 라브노는 ‘자랑스러운 가족’ 리부트의 쇼 진행자들이 자신의 전혀 비밀스럽지 않은 동성애 의제를 받아들였다고 칭찬하면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나를 막으려고 시도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퀴어니스를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의제가 환영받아 “이 두 캐릭터를 키스하게 할” 자신감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디즈니 제너럴 엔터테인먼트의 캐리 버크 사장은 자신을 “두 명의 동성애자, 한 명의 트랜스젠더와 한 명의 범성애자”의 엄마라고 밝힌 후 디즈니 프로그램 편성에서 LGBT의 등장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디오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문걸(Moon Girl)’에서 일하는 디즈니 제작 코디네이터 앨런 마치는 “고전적인 트랜스젠더 캐릭터, 고전적인 무성애자 캐릭터,



▲ 레즈비언 부부를 등장시킨 디즈니 애니메이션 ‘꼬마 의사 맥스터핀스’의 한 장면. 출처: 유튜브 채널 Disney Junior 캡처

그리고 고전적인 양성애자 캐릭터들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에서 동성애 옹호단체인 ‘이퀄리티 플로리다(Equality Florida)’의 나딘 스미스 대표는 “우리 주의 의원들과 드산티스 주지사는 성소수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지우고, 범죄화, 악마화하고 싶어한다.”며 “다음 단계는 당신(성소수자 지지자들)을 범죄로 처벌하고 당신의 아이들을(동성애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데려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플로리다의 부모권리 강화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기관 ‘공공여론전략연구소(Public Opinion Strategies)’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직원이나 제3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교육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까지 할 수 없다는 법안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61%가 이 법안을 지지했다. 또 미국인의 67%는 어린 학생과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NPNEWS]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기획

# 국민의힘, 부활절에 지방선거 출마자 자격시험 계획, “물의”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보수주의 회복돼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출마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자격시험을 부활절 주일예배 시간인 4월 17일 11시로 결정,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건강환경기독교만들기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은 12일 낮 서울 통의동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은 ‘국민의힘 정당은 1200만 기독교인을 무시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공직 시험이 토요일에 실시되는데도 굳이 주일, 특히 부활절 당일 시험을 실시하느냐.”며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하순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을 치르도록 해,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결정과 관련,

12일 시위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시험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생각하는 날짜와 시간에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술수로 여겨진다.”며 “올바른 정당이라면, 특정 종교인들을 선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는 소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날짜를 변경하는 대신 시간을 오후 3시, 그리고 또 오전 8시 30분으로 재차 변경하는 것으로 반대 여론에 대응하는데 그쳤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구분해왔다. 이때 ‘보전하고 지키다’는 의미의 보수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을 무시하거나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뤄지는 가족제도를 무시하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같은 인류 사회가 유지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개념이 바로 보수주의(保守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수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변화와 개혁을 중시하는 개념을 진보주의라고 구분하기는 어렵다.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개혁을 이뤄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을 ‘보수’ 정당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러한 보수 정당에 번번이 실망을 하는 것은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보수적 가치를 사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보수적 가치인가? 그저 옛날의 제도나 풍습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수구(守舊)적 태도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지켜야 할 옛 가치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창조적 질서와 인간의 타락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십자가 복음이다. 종교개혁은 그 보수적 가치를 잃고 종교집단으로 전락한 가톨릭교

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한 이신칭의의 믿음의 회복, 즉 ‘성경적 보수’의 회복이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보수의 회복을 꿈꾼 유럽의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1620년 신대륙에 도착해 일궈낸 미국 사회도 이 같은 기독교적 가치 즉, 보수적 가치에서 오늘날의 보수주의를 뿌리 내리게 했다.

한국 역시 건국의 아버지들이 꿈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즉, 기독교 입국론에 의한 그런 보수적 가치를 중심으로 건국과 근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경제적 풍요와 지나온 역사적 의미를 잃어버리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쫓 빼고 그 자리를 대체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한국의 보수주의인양 여겨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보수 집단은 본질을 잃어버린 비(非)보수 집단으로 전락했다. 이 같은 비보수 집단을 보수주의자로 여긴 사람들은 보수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반(反)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가 되려면, 이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진정한 보수



▲ 부활절에 공천시험을 실시하는 국민의힘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시민들.

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들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동안 보수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우리 사회의 개혁은 이뤄질 수 없으며, 의미 없는 변화만 나타날 뿐이다.

나를 비롯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경적 진리에 순종하고, 그동안 그 복음의 진리에서 비껴나 있었던 삶의 태도를 돌이키며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국민들에 의한 국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70)

#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평가하는 우생학... 원주민 종족 말살에 악용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론은 인본주의의 기초 철학이면서 인종주의의 기초이기도 하다.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사상은 진화론에서 시작된다. 찰스 다윈의 책 '종의 기원'의 원제는 '자연 선택이라는 수단, 또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혜택 받은 인종의 보존에 의한 종의 기원'이다. '혜택 받은 인종'이란 말은 1859년 그가 책에 썼던 발언으로,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타당했다.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윈은 원주민들을 진보된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노예제도로 흑인들을 소처럼 사고팔았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헨리 피어필드 오스본은 "평균 성인 흑인의 표준 지능은 호모 사피엔스 종의 11살짜리 아이의 지능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토머스 헉슬리(T. Huxley)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보통의 흑인이 백인과 동등하거나 백인보다 우월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영국 성공회

목사 찰스 킹즐리는 "아프리카 흑인들과 같은 종인 호주의 흑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모든 노력이 철저히 실패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불쌍한 짐승들... 그들은 야수처럼 지구의 표면에서 멸망해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몰몬교는 "흑인들은 성직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인종과 평등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들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며, 그의 영원한 공의의 율법에 기초해 있고 그들의 첫 번째 생애에서의 영적 용맹성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몰몬교는 천국에서 아기들이 먼저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하늘의 아버지에게 수천 명의 아내가 있어서 아기 영혼들을 낳는데, 좋은 아기 영혼들은 지구에 올



▲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라 여겨진 호주의 원주민들은 백인들에 의해 많이 죽임을 당했다. 출처: bokmos.is 캡처

때 흰 피부를 가진 몸을 받고, 나쁜 아기 영혼들은 검은 피부를 가진 몸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1800년대에는 대중적이었다. 그들은 다른 대륙에서 노예를 사서 최대한으로 배에 태웠다. 한 무리가 죽으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노예들을 시장에서 팔았다.

호주에 백인이 정착할 당시, 호주 전체에 약 30만 명의 원주민이 정착해 있었다고 추정한다. 정착민들은 호주 원주민들이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며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 전쟁으로 죽이는 것 외에도 물, 밀가루, 설탕에 독을 섞었고, 천연두, 홍역, 독감 바이러스 같은 질병들도 고의로 퍼트렸다. 원하면 호주 원주민들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 법이었다. 그래서 태즈메니아 원주민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는 진화론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골턴은 인종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 '우생학'으로 '열등한 인종들을 없애 버리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우생학을 위해 모든 분야의 과학을 끌어들이었다. 이 사상은 의사가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사람들을 불



▲ 1929년 미국 캔자스주에서 개최한 우생학 및 건강 전시회(Eugenic and Health Exhibit). 히틀러는 우생학을 먼저 받아들인 미국의 영향을 받아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출처: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임시키는 법을 미국에서 탄생시켰다. 흑인들은 그 결과, 20세기 동안에 약 6만 명이 미국에서 불임 시술을 받았다고 추산된다.

문제는 미국 우생학이 독일에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나는 확률적으로 인종 창고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로울 수 있는 자손의 생산을 막는 몇몇 미국 주들의 법을 매우 흥미롭게 공부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인디언들이 진화가 덜 된 열등한 종이라고 생각했고, 유럽,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동양에서 온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1871년에 미국 의회는 인디언들과의 모든 조약을 폐기하고, 그들을 보존구역으로 이주시켰다.

성경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말 2:10). 인종주의자가 될 이유가 없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행 17:26a) 다윈은 존속결혼을 믿었다. '우월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그의 사촌 엠마 웨지우드와 결혼해 10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메리는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 죽었고, 앤은 10살 때 죽었으며, 로버트는 지체아로 태어나 19개월 때 죽었다. 헨리에타는 15살에 심각한 쇠약증에 걸렸고, 여섯 명의 아들 중 세 명은 하도 자주 아파서 찰스는 그들을 반(半)환자로 간주했다. 이것이 그가 믿은 우월한 종자였다. [GNPNEWS]

## 복음의 능력

### 당신의 죄의 깊이

당신의 죄가 얼마나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혐오스러운 시체에 구더기들이 들끓는 것이 보이는가? 그보다 더 많은 더러운 욕망이 거룩하게 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다. 그의 머리와 마음과 눈과 입에는 더러운 욕망이 가득하다. 한번 돌이켜보라.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가? 죄를 짓지 않았던 장소가 있었는가? 당신의 속을 들여다보라. 당신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부분과 재능이 전부 죄에 오염되어 있다. 당신은 평생 빛을 지고 살아왔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고, 갚을 능력도 없다. 당신 본성의 죄를 보라. 그리고 그 본성이 낳은 저주스러운 죄들을 보라.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한 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젊어서 지은 죄, 성장해서 지은 죄를 모두 기억해내라. 양심의 기록을 꼼꼼히 읽어라. 조만간 양심의 기록이 공개될 것이다. [GN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 동역자 간증

### 주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삽화 그리기

본지는 다양한 영역의 동역자들과 함께 문서선교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김경선 작가의 은혜의 간증을 소개한다. <편집자>



▲ 삽화를 그리고 있는 김경선 작가. 제공: 김경선 작가

복음기도신문의 삽화를 그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잘 그리지도 못하는 실력으로 삽화를 그리며 믿음으로 씨름하는 게 무슨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에 어려운 마음이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순간마다 그림이 잘 그려졌으면, 색이 잘 칠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주님께 매달리고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순간 순간마다 믿음으로 넘기는 게 싫었다. 믿음으로 그럴 때도 있지만, 믿음 없이 나의 능력으로 그럴 때도 있는 이런 나의 내면의 과정이 무슨 쓸 만한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림을 배우고 그리면서 그림은 내 생각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배우고 그려냈다. 그랬던 내가 모든 걸 멈추고 나를 그리는데가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복음기도신문을 만나게 해주셨다. 처음에는 못 그리든 잘 그리든 행복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그냥 마감에 맞춰 넘기자는 마음이 되어버렸다.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그리는 나를 보게 되었다. 부끄러웠다. 그러나 이런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일이 주님을 더욱 찾고 작은 일에 순종으로 충성되길 바라는 주님 앞에서는 시간이 되었다. '삽화를 그리는 이 일에 누가 부르셨지? 누가 하시지?'란 질문에 '주님'이라는 결론 앞에서 서면서 그림 그리는 일도 '믿음이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

세상에서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내가 정한 시간에 내 원대로 그렸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정된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았다. 무엇을 그릴지 주님께 여쭙고, 그릴 대상을 찾고, 알맞게 색칠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항상 어렵다. 그런데 잘 알고 있다

는 착각이 나에게 사슬이며 두려움이었다는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나 또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설프게 '전업작가'라는 세계에 발을 담고, 똑똑하다는 분들과 교제하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알고 있다.' 여기는 이 교만함이 나의 사슬이고 두려움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길, 복음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만 구하는 시간이 나의 행복이고 사는 길이라 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직 매 순간, 안다 여기는 것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림을 그릴 것을 결단한다. 때로는 씨름하며 삽화라는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때 행복하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GNPNEWS]

김경선 작가

Jesus Christ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주누가 선교사 (지오 선교회 대표)

• 1면에 이어

- 선교사님의 거듭남의 간증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대 본과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급작스런 질병으로 매일 누워 있다 보니, 의사가 되는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건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투병 중에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내 자신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설악을 가다가 탈진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란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때 병문안차왔던 친구가 주고간 성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은혜요! 그런데 이해도 안되고 그 내용도 기억 안되는 이상한 책이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5장 25절을 봤어요. ‘죽은 자들도 들을 수 있는 아들의 음성?’ 나도 그 음성 듣고 싶단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강력하게 믿어졌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 듯 세상이 달리 보이고 정말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셨네요. 이후엔 어떻게 되셨나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년을 재수했는데 주님을 경험하니 그 애증이 부질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고, 당시 사귀고 있던 형제들과 함께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걸프전 직후 이라크 북부에서 쿠르드 난민 사역을 한 후에 병원을 떠나 코카서스 이슬람 국가를 향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30년 넘게 달려왔네요.”

### “건강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 더 듣고 싶지만, 최근 근황을 소개해주시죠.

“거의 이십 년간 사귀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최근에 개종한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도와 같은 이들과의 특별한 만남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였어요. 긴급재난 사역 중이던 바그다드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는데 한국교회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 공개 사역이 위험하지 않나?’고 물었어요. 형제들은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 안전하다는 것은 테러 안 당하고,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거다. 우린 죽어도 안전하니 도와다오!”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돕기 시작했어요. 저희 지오 선교회 리더십이 일 년에 한두 차례 그들과 만나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해요. 사역의 고민도 듣고,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고,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지요. ISIS의 테러활동이 극심한 도심에서 형제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기이한 일이었지요. 저희도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때 예레미야가 아니라 땅을 산 것처럼 소망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의 선포였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수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들의 섬김과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로 주께로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그 교회에 넘쳐나요. 이렇듯 최근에는 중동에 MBB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 놀라운 일이네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직접 건져내신 MBB들의 간증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고백을 하기까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꿈과 환상과 치유의 역사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됩니다. 교사였던 50대의 한 형제는 22년만에 이 고백을 하게 된 간증을 하는데 난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형제는 목숨 걸고 이 신앙고백을 붙들고 있어요. 이슬람 신학자 밑에서 수년을 배우고 이슬람 사역자로 일하다가 리더들의 삶에 실망하고 방황하다가, 정교회 같은 정통 기독교회에 가보기도 했지만 배척을 당했죠. 대개 정교회 사제들은 이슬람의 개종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개신교회 예배에 참석해 강단에서 선포된 사랑의 메시지와 환대에 큰 감동으로 예배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를 데리고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MBB들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 이후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신앙과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슬람으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 죽음의 고통에서 나온 MBB들의 신앙 고백... “큰 도전”

- 이런 MBB들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또 선교단체 지오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환안 속에 있는 MBB들을 위해 다른 어떤 도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는 일, 영의 양

식을 나눔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게 합니다. 지금 이슬람권 사역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전히 씨를 뿌려야 하는 곳, 그 씨가 자라 열매 맺는 곳, 또 MBB들 가운데 목자가 세워진 지역도 있어요. 한 명 한 명 친구로 사귀며 전도해야 하는 지역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많은 MBB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MBB들 가운데 목자들을 세우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박해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이들을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MBB들 가운데 목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무슬림이 많이 있어요”

- 무슬림 개종자들 안에 리더들, 목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군요.

“네. 또 무슬림권에 있는 정통 교회 안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거듭난 CBB(Christian Background Believer, 정통교회의 회심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중동지역을 흔들고 계세요. MBB나 CBB들에게 다가 한국교회가 양육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랑의 울림을 가진 사역자들이 돼야 해요.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 공동체 기도모임 모습(위)과 지오 선교회 콘퍼런스. 제공: 지오 선교회

- 그러면 앞으로의 선교 방향은 어떠한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선교의 주된 핵심은 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디아스포라와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대이기에 국내에도 미전도종족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섬겨야 하고요, 특히 우리의 다음세대를 제대로 섬기는 일이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다음세대를 섬기는 것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되어야죠.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일은 지식 교육만으로는 어렵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적인 삶이 중요하



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초대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너무 닮아서 욕을 먹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이중적 가치를 드러내니 자녀들도 혼돈이지요.”

###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것이 선교사의 일

-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주민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디아스포라와 난민들을 섬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무슬림 디아스포라와 난민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무슬림 난민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밀어냈어요. 이슬람 확산을 우려하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주님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섬길 대상이 제 발로 찾아왔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먹힐까봐 겁을 내는 모습인거죠. 구약에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야죠. 한동안 ‘한국에 이슬람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염려했어요.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열심을 낸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관점으로 보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신의 악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우는 자가 되어야 온전한 선교를 할 수 있겠지요. ‘선교해야 한다!’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 가치가 타오르는 교회가 되면 선교는 절로 되어집니다. 피문은 손으로 열심히 일해봤자 주님이 그 섬김을 받으실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교사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길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 기술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 선교사님에게 선교 기술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꽤 많은 무슬림을 돌이키게 했고 교회개혁의 열매도 있었죠. 그런데 나는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내 힘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 충청도 작은 도시로 우리 단체가 이사하게 된 후에 공동체적으로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린 큰 사역을 기대했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루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폭로하시는 데 정신없었지요. 눈물 콧물 정말 말씀 앞에 떠는 시간을 모든 식구들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책망과 징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좀 과장하면 겁이 나서 강의도, 선교동원도 못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정결함을 배우고 적잖은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공동체라고 하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녀들까지 70명이 함께 살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도록 합니다. 함께 살면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죠.”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세요.

“평소 기도하던 제목은 정결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하지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공동체의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다음세대 일어나도록, 또 무슬림의 도시마다 평강이 임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세계 교회가 정결함으로 열방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GNPNEWS]

C.K.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빛나는 믿음 (8)

# 여호와를 앙망하며 끝까지 경주하라!

코로나19로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이 멈춰진 세상을 보았다. 세상의 형편, 교회의 형편, 나 자신의 형편과 실상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새롭게 달려갈 길목에 서 있다. 상황이 절박하다. 어떤 시작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느냐, 어떤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다.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 주님 앞에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이 시간에,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돌아보아야 한다.

히브리서에는 구름 같은 증인들의 외침이 들린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증인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내 삶에는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나? 내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몇 %짜리인가?’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이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다른 데를 기웃거리며 흔들리는가? 하나님은 이사가 40장을 통해 놀라운 인내를 이루어 내는 비결을 말씀해주신다.

### 예수는 내게 몇 %짜리인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

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고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27~31)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시간이 다가왔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인내의 경주를 하라고 하실 때 어떤 의지라도 어떤 체력으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없으면 곤비하고 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영광에 사로잡힌 만큼 예수님과 같이 부끄러움



일러스트=이예원

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로 승리한다. ‘경주’란 달리는 것이다. 가짜 말고, 진짜 믿음의 길. 아브라함이 걷던 그 길.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너, 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남은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만 바라며

시작을 분명히 하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2021년 1월)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그두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사라 불렀더라”

BOOK JAKIN 복음도서

TOUR BOAZ 선교여행

문의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영원간병회에서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영원간병회는 열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단체로 전국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일할 간병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도 간병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51-271-0171, 010-7227-2560  
협회장 김명숙 권사  
✉ sejy22@nate.com

복음기도총서2

GPM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비상한 때, 비상한 응답

GPM 신간

김용의 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 집에 들어온 쥐를 보며 혐오스러운 죄를 보게 됐다

어느 날 집 안에 쥐가 들어왔다. 집안 곳곳에서 쥐의 흔적들이 보였고, 그때부터 한 달 좀 넘게 그 존재와 전쟁을 치러야 했다.

하루는 아침에 가스레인지가 작동되지 않았다. 가스레인지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움직이는 무언가와 오전 내내 씨름하다가 드디어 잡았다. 잡고 보니 그날 갓 태어난 새끼 쥐 대여섯 마리였다. 소름이 끼쳤고 너무 끔찍했다. 숨어 있던 어미 쥐를 다시 발견했으나 잡으려는 순간 내 눈앞에서 달아나버렸다. 무서워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눈앞에 보이는 쥐도 무서웠지만 그 쥐가 내 안에 숨어있는 죄 같아서 더욱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쉽게 잡히지 않는 쥐가 번식까지 하듯 내 안에 오래 묵은 죄가 끊어지지 않을 때 계속하여 확장해 갈 수 있는 것

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 같았다. 집 안에 있는 쥐 때문에 괴로웠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웠다. 너무 싫은 그 존재가 며칠

은 쥐 때문에 기도가 절로 나왔다. “주님, 쥐가 잡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식탁 아래 숨었던 쥐를 하나님 은혜로 남편이 잡았다.



일러스트=고은선

보이지 않으면 그냥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치고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어김없이 쥐는 흔적을 남겼고, 식탁 아래에서 전선을 갇아 먹어 밥통을 멈추게 만들었다. 잡히지 않

쥐가 잡히고 청소된 집이 며칠 못 가서 다시 쥐가 나오기 충분할 만큼 지저분하고 엉망이 되어 버렸다. ‘우리 집은 아이가 네 명이니 까, 나는 일을 해서 바쁘니까.’라는 변명을 늘어놓지

만 보이는 곳곳에 내 죄가 쌓이는 것 같았다. 몸에 해로운지 알면서도 늦은 시간에 기어이 간식을 먹어버리고, 몸이 피곤하면 기도시간도 그냥 건너뛰고 자 버리고, 잠만 나면 먹방 유튜브를 보고 있다. 빛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나의 죄를 직면하는 것은 너무 괴로웠다. 그러나 더욱 은혜가 되었다. 죄가 싫어지지 않고, 스스로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보이는 상황과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는 소망 없는 나지만 그래서 예수님만 소망되심을 고백하게 됐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겠지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한다.

[GNPNEWS]

임은경

복음의 소리 316  
1670-3160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 남편의 외도에 지쳐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너무나 지쳐 있으나 남편과 성도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외로움에 떨고 있을 내담자에게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한 사람의 내면과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사탄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담자에게 허용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출발을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다음 단계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내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나의 구원이면 용서를 충분히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서할 수 없다면 다시 복음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남편의 불륜을 내담자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용서 없이 외형적 가정만을 유지한다면 가정을 사탄의 놀이터로 계속적으로 내어줄 뿐입니다. 그 다음, 용서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외형적 가정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는 또 주님의 뜻을 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크시겠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노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 가실 것입니다. [GNPNEWS]



# 北 보위부... 체포된 주민 전화 영상통화로 해외에 있는 관련자들 수사

한반도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웃이 살고 있는 북한의 회복을 소망하며, 북한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북한의 국경 지역의 보위부가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주민들을 활용해 한국과 중국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확인하는 도발적인 수사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데일리NK가 전했다. 이에 매체는 북한 보위 당국이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자

‘소탕전’을 선포하며 반드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 보위부의 수사 범위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장한 것으로 풀이했다. 보위부는 체포한 주민과 연락해왔던 대상들의 국적과 거주지역, 송금액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해산시에서 지난달 불법 송금과 불법 전화 사용 혐의로 시보위부에 체포된

40대 여성 강모 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가 사용하던 중국 휴대전화 메시지 ‘위챗’의 목록에 있는 80여 명과 영상통화 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는 보위부가 강씨가 자백한 내용의 신빙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메시지 목록에 있는 대상들이 순수한 일반인인지, 간첩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선별 확인 작업을 진행하려는 의도에서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북한 주민들과 연락을 취하는 50대 중국인 황모 씨는 지난 4일 한동안 연락이 없던 북한 주민으로부터 걸려온 영상통화를 받았다. 그는 북한 주민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더니 이내 전화기를 보위원에게 넘겼고, 보위원으로부터 각종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황씨는 “접경지역 보위부의 경우 조-중 수사 협력 조약에 따라 제정된 인원이 중

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지역을 임의로 다닐 수 있는 것으

로 아는데 이렇게 안에 있는 수사관들이 영상통화를 거

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밝혔다. [GNPNEWS]

## 유럽의회, 北 인권 규탄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가 7일 ‘종교 소수자 박해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으로 명명된 북한인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이 결의안은 장기간 지속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종교와 표현의 자유 탄압 등은 물론 코로나 국면의 인도적 경우 조-중 수사 협력 조약에 따라 제정된 인원이 중

등도 지적했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국가가 시민들에게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박해를 포함해 북한 정권에 의한 초법적인 살인, 고문, 성폭력, 임의 구금 등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 낙태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별에 따른 박해, 강제적인 인구 이동과 우려와 함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

중단할 것을 김정은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또 지난달 2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로, 유엔 안보리 다수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국제와 역내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지하며,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함께 비핵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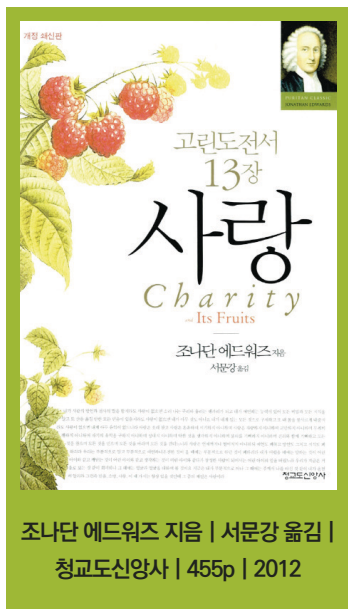


▲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유튜브 채널 Wall Street Journal 캡처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조나단 에드워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사랑이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하나님은 모두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허락하셨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감정,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사랑스럽게 보는 기쁨, 땅을 일구는 자에게 수확과

열매의 보람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신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 가장 오해되기 쉽고 이해하기 모호한 성품이 사랑이다. 사탄은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결정적인 성품인 사랑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사랑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남녀 간의 사랑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성별을 없애 버리고 그저 느낌이 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속인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속성만큼 모두가 자신만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개념이 있을까? 열이면 열 모두 자신이 경험한 사랑에 국한하여 정의 내릴 것이다.  
그러나 여기 사랑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사랑 자체인 분,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께 물어보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잠기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인간의 생각과 분별로 가능될 수 없다. 우리는 영 죽을 죄인이었다. 죄의 깊이를 잴 수도 없어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 그가 가야할 곳으로 표현되는 게 죄인의 실상이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으나 누가 악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어진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순간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향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예언과 방언, 병 고침의 은사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들도 필요하다면 선물로 주신다. 특별 은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은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에 대해 ‘모든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원천, 그 근원’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은혜는 혼자 존재하고 혼자 활동할 수 없다. 모든 은혜들은 함께 연관되어 상호 의존하고 연합하여 작용한다. 한 고리가 풀리면 다 풀어져 아무 효력도 낼 수가 없다. 기독교의 최고 원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행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에드워즈는 이를 ‘참된 실질(reality)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야기한다.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부터 자세히 설명한다.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다.’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에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한두 번은 참고 믿고 바라겠으나 어느 누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사랑이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하신 일, 우리의 악함을 견디고 믿고 바라며 승리하셨다.  
말세가 가까운 이 세대는 기독교 박해가 최상으로 치닫고 있다. 눈물겨운 순교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두려움과 경외함을 동시에 느낀다. 얼마나 강하고 굳센 믿음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이를 가능케 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은 결코 꺼지지 않을 빛이 되어 드러날 것이다. [GNPNEWS]  
최현정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 한국교회가 알아야 할 이슬람의 라마단

한때 이슬람 세계의 단식 절기인 라마단 기간에 국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역 라마단 운동’이라는 기도운동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이름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으로 바뀐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은 매우 민감해서 무슬림들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키우기에 십상이기 때문이다.

### ‘역 라마단’에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으로

필자는 20년 가까이 해외 이슬람권 현장에서 살면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모순점과 비진리성에 관해 많은 연구를 했으며 적지 않은 반박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때는 사역 현장의 여러 무슬림을 향해 이슬람이 가진 모순점과 허구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도 했고, 기독교의 우월성과 진리를 피력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전도 방법은 꾸란도 제대로 읽지 않아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판단할 수 없고, 오직 맹신으로만 평생을 살아 온 그들을 단 한 명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때 그

들은 필자의 논리적인 반박에 자기들의 모순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결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필자를 반박할 구실을 찾아 다시 논쟁하려는 노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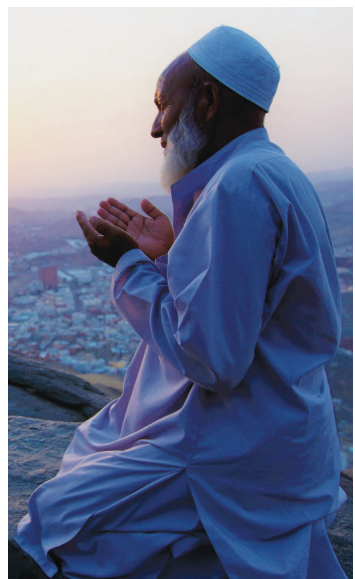
### 존중과 배려를 통한 복음 전도로 다가가기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이슬람 세계의 라마단은 분명 이질적인 신앙을 가진 이슬람 교인들에 의해 치러지는 연례 종교행사이다. 이 기간이 되면 전 세계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은 라마단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알라 앞에서 모든 무슬림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음 전도 현장에서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감도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라마단은 전 세계 15억 명이 넘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명절 기간이기도 하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한 불교 신자들을 향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해외 선교 현장에 포함해서 국내 선교 현장에서도 이제 이웃이 되어 살아가기 시

작한 무슬림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존중과 행동으로부터의 배려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진리를 아끼지 않고 나누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소유한 최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려는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바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복음 전도로 나타나야 한다.

### 무슬림들, 한국교회로 보내주신 사랑과 전도의 대상

그러므로 지금 국내 곳곳에서 선택의 자유도 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본 소식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무슬림 손님들은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과 전도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분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출처: 30일기도운동네트워크 홈페이지 캡처

올해의 전 세계 이슬람의 라마단 단식 절기를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단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단지 율법의 복종만을 통해 확실하지도 않은 구원을 어렵웃이나마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이 이사야서 말씀을 깨닫고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GNPNEWS]  
김종일 교수(아신대학교 중동연구원)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2. 3. 24 ~ 4. 12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순호 권혜령 김대혁 김사회 김선례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유남 김정희 김형숙 김혜신 노은옥 박경희 박민숙 박신희 신현경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이삼연 이영옥 이은주 이장원 이주선 이지수 이진희 장근해 장진 조명숙 조형광 차익수 최점옥 최정미 홍고집오경선 무명

####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김화제일교회 고현교회 반석중앙교회 은혜신일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목자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헵시바교회 함안순복음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